

주께 가는 길 함께 가는 길

2023 시카고 KCLC 이냐시오 침묵피정

Mary Town

기도의 방법

- 모든 기도 방법들은 하느님과 “친밀한 만남”을 지향한다.
 - 친밀한 만남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생각과 감정의 표현 안에서 이루어진다.
-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자리에 은총이 자란다.”
- 각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기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화 데레사 -

묵상과 관상

묵상은
하느님의 사랑에 비추어
특정한 성서 말씀을
의지적으로 집중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기도이다.

믿음, 희망과 사랑 안에서
새롭고 깊은 이해를 구하는
진지하고 건강한 이성의 활동.

관상은
주로 상상력을 사용하여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들의 대화와 행동에
주의 집중하는 기도 방식이다.

하느님을
내적인 눈으로 바라 보며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사랑을 깊여 나간다.

묵상 (루카 5:1-11)



- 내가 이 복음을 읽다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에 완전히 사로 잡혔다. 그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내가 큰 울림을 받은 이유는 베드로가 아주 겸손해서 주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이끌렸다. 나는 자신감을 잃고 힘들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내 생각에 베드로는 전형적인 남자로 보인다. 그는 그때 수치감을 느꼈다. 남자로서 쉬운 일은 아니다... 남자는 능력을 보여주고 통제하고 싶어한다. 베드로는 무수하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면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한 말은 나는 이 이을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으니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사람이오.” Ecce Homo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자, 이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요한, 19:5-6)



이 장면이 내 마음과 상상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나는 본시오 필라도와 당신을 고발하는 이들 앞에 서있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이 당신의 죽음을 요구하는 순간에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평화롭게 서계실 수 있는지 신비로웠다. 내 자신을 그 장면에 완전히 몰입하고 주님의 평화로움과 침착함을 느끼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다. “그래. 나를 가져가거라. 나의 죽음이 너희에게 구원을 줄터이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거라.” 나는 성부께서 예수님을 꼭 안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네 자신을 그들에 넘겨 주거라” ... “나는 너를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의 품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다.” 긴 기도 후에 나는 성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도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안아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품안에서 너는 안전하다.”







관상

“주님을 바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뵈겠기 때문입니다.”

(1요한 3:2)

기도 실습 1)

- " 그가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할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겹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열왕기 19:9-11, 11-13)

성찰

1.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분위기, 통찰, 감정, 어려움, 등등)
2. 어디서 하느님을 찾았나요? 하느님께서 어디로 이끄셨나요?
3. 청했던 은총을 받았나요? 다른 것을 받았나요?(은총을 통한 내면의 변화)
4.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성서 구절이나 이미지는 무엇이었나요?

강의 1. 주께 가는 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마태 14,29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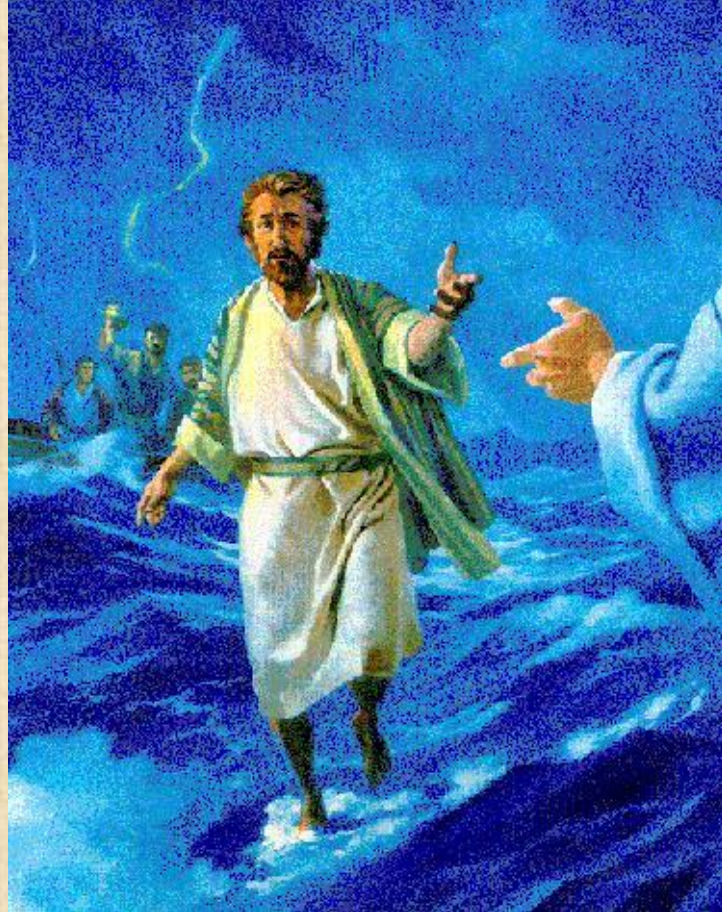
두려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마태 14, 26)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마태 14, 30ㄱ)

“오너라” (마태 14, 29ㄱ)



기도 안내: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 영신수련을 더 잘 하고 원하는 것을 더 잘 찾기 위한
지침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선택한 자리
한두 발짝 앞에서 정신을 높은 곳을 향해 들어 올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지” [75] 생
각한다.

나를 바라 보신다

- 시편 33, 13-15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신다.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굽어보신다,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마음을 다 빚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 감시인가? 보호인가?
- 이용한다? 이해한다?
- 문을 닫는다? 문을 연다?

기도 자료

하느님의 사랑(의 눈빛)을 느끼고 받아 들이는 은총

- 시편 139: 나를 아시는 주님
- 예레미아 18:1-17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6ㄷ)

기도 실습 2)

•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창세기 2:4-8)

강의 2. 함께 가는 길



- 별을 보고 함께 떠난 사람들
(마태오 2, 1--12)
- 빛을 보는 법
- “늘 더 크신” 하느님

빛을 잃은 체험

- 별을 다시 보고 더없는 기쁨의
이면
- 어두운 세상
- 어두운 길을 걸을 때



공동체의 여정

A woman and a child are walking away from the camera on a gravel path. The woman is on the left, wearing a dark jacket and pants, with her arm around the child. The child is on the right, wearing a striped hat and a patterned sweater. The background is a soft, hazy landscape with trees and a bright light source, possibly the sun, creating a warm, golden glow.

- 빨리 가려면 혼자가라, 안전하게 가려면 함께 가라.
- 신앙 체험과 공동체 탄생
- 상처받은 이들의 공동체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That's okay!"

다른 길로

- 헤로데 임금의 본질
- 메시아를 만나서
- “이 탄생은 우리에게겐 괴롭고 쓰라린
고뇌였었지. '죽음'처럼,” T. S. 엘리엇



기도 안내

- 은총: 죄의 어둠 속에 앓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고 빛으로 나아가는 은총
- 마태오 2, 1-12 동방박사의 여정
- 루카 15,1-7 되찾은 양의 비유

공동 기도: 걱정하지 말라 (루카 12:22~32)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까마귀들을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골방도 곳간도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도 할 수 없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걱정하느냐? 그리고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들에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공동 기도: 걱정하지 말라 (루카 12:22~32)

배경 : 새가 날아다니고 꽃이 피어 있는 들판

은총 :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의탁하는 은총

요점

1.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또 몸에다 무엇을 거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귀하고 몸이 옷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2. 저 새들을 생각해 보아라.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내 어린 양 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담화 : 기도에서 느낀 바나 궁금한 점을 가까운 친구나 자상한 어른에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 말씀 드린다.

주님의 기도

성찰

1.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분위기, 통찰, 감정, 어려움, 등등)
2. 어디서 하느님을 찾았나요? 하느님께서 어디로 이끄셨나요?
3. 청했던 은총을 받았나요? 다른 것을 받았나요?
4.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성서 구절이나 이미지는 무엇이었나요?

기도 실습 3. 옛날 집 방문하기



성찰

1.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강한 감정이었습니까?
2.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까?
3. 집안에 특별히 머물고 싶은 공간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가보았습니까? 가기 싫은 곳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가보았습니까?
4. 이 연습을 끝난 시점인 지금 어떤 느낌이 남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입니까?

강의 3. 나자렛에서 시작한 길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요한 19:19)

나자렛: 마음이 자라는 곳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루카 2:51-2)

나자렛: 떠나야 할 곳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창세 12,1).

기도 안내

- 은총: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는 은총
- 마태오 3, 13-17 세례를 받으시다
- 루카 5, 1-11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 마르코 2, 13-17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마르 1,12-13) : (루카 4,1-13)

- 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 2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 3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 4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6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 7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 8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 10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11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공동 기도: 광야로 간 예수 (마태오 4:1~11)

배경 : 광야

은총 :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믿음을 닮는 은총

요점

1. 세례 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본다: 예수님이 머무르시던 곳이 어떠했는지 (땅, 식물, 동물 등) 살피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계셨는지 기도해본다.

2. 예수님이 겪으신 세 가지 유혹 중 지금 나 자신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으로 관련 있게 느껴지는 것을 하나 골라서 기도해 본다: 악마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예수님은 대처하시는 방법을 잘 살펴보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

3. 광야의 유혹은 악마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다시 시중 들기 시작하면서 끝이 난다: 예수님에게서 악마가 떠나가는 모습과 예수님께로 천사가 다가오는 모습을 비교해 본다.

담화 : 기도에서 느낀 바나 궁금한 점을 가까운 친구나 자상한 어른에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 말씀 드린다.

주님의 기도

성찰

1.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분위기, 통찰, 감정, 어려움, 등등)
2. 어디서 하느님을 찾았나요? 하느님께서 어디로 이끄셨나요?
3. 청했던 은총을 받았나요? 다른 것을 받았나요?(은총을 통한 내면의 변화)
4.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성서 구절이나 이미지는 무엇이었나요?

기도 실습 4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르시니, 그들이 출발하였다. 그들이 배를 저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잠이 드셨다. 그 때에 돌풍이 호수로 내리 몰아치면서 물이 차 들어와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지며 고요해졌다. (루카 8:22-24)

• 기도

• 은총: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평화 중에 기도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은총.

• 요점: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 보라. 폭풍우에 놀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신 후 고요해진 바다를 느껴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머물러 보십시오.

• 담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린다.
주님의 기도



성찰

1.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분위기, 통찰, 감정, 어려움, 등등)
2. 어디서 하느님을 찾았나요? 하느님께서 어디로 이끄셨나요?
3. 청했던 은총을 받았나요? 다른 것을 받았나요?(은총을 통한 내면의 변화)
4.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성서 구절이나 이미지는 무엇이었나요?

강의 4. 성모님께서 걸으신 길



주님 탄생 예고 대성당



“이곳에서 말씀이 육이 되셨다.”
(VERBUM CARO HIC FACTUM EST)

주님 탄생 예고 제대

엘리사벳 언니 집에서: 찬미와 봉사의 삶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루카 1,56

카나의 혼인잔치 (요한 2, 1-11)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루카 1,19)

고통의 어머니, 영광의 어머니



기도 안내

- 은총: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는 은총
- 마르코 7, 31-37 에파타! (열려라!)
- 요한 13, 1-20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다
- 루카 23, 13-49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숨을 거두시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마태 17,1-9) : (루카 9,28-36)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천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공동기도 거룩한 변모 (마르코 9, 2-10)

- 배경 :
- 은총 :
- 요점
 - 1.
 - 2.
 - 3.
- 담화 :

성찰

1.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분위기, 통찰, 감정, 어려움, 등등)
2. 어디서 하느님을 찾았나요? 하느님께서 어디로 이끄셨나요?
3. 청했던 은총을 받았나요? 다른 것을 받았나요?
4.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성서 구절이나 이미지는 무엇이었나요?

기도 실습 5. 만찬의 추억



성찰

1. 어떤 감정들이 올라 왔나요?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강한 감정이었습니까?
2. 당신은 몇 살이었습니까? 나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3.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그 음식과 관련된 사람이나 사건이 있나요?
4. 하느님에게서 받은 느낌이나 은총이 있었습니까?

강의 5. 성심의 여정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요한 1:18)

“예수께서는 뒤돌아 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삐,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 (요한 1:38-39)

솔로몬의 보물: 듣는 마음



-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상 3, 11-12)

갈라진 나의 마음

- 양가감정: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들 동시에 혼재하는 현상



예수님의 목적지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와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10, 38-42)

기도 안내

- 루카 24, 13-35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의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는 은총
- 사도행전 2, 1-13 성령 강림
하느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르며 참된 신앙 실천하는 은총

하늘 - 박두진(朴斗鎭)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머얼리서 온다.

하늘은, 머얼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스미어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별,
초가을 햇별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마음이 익는다.